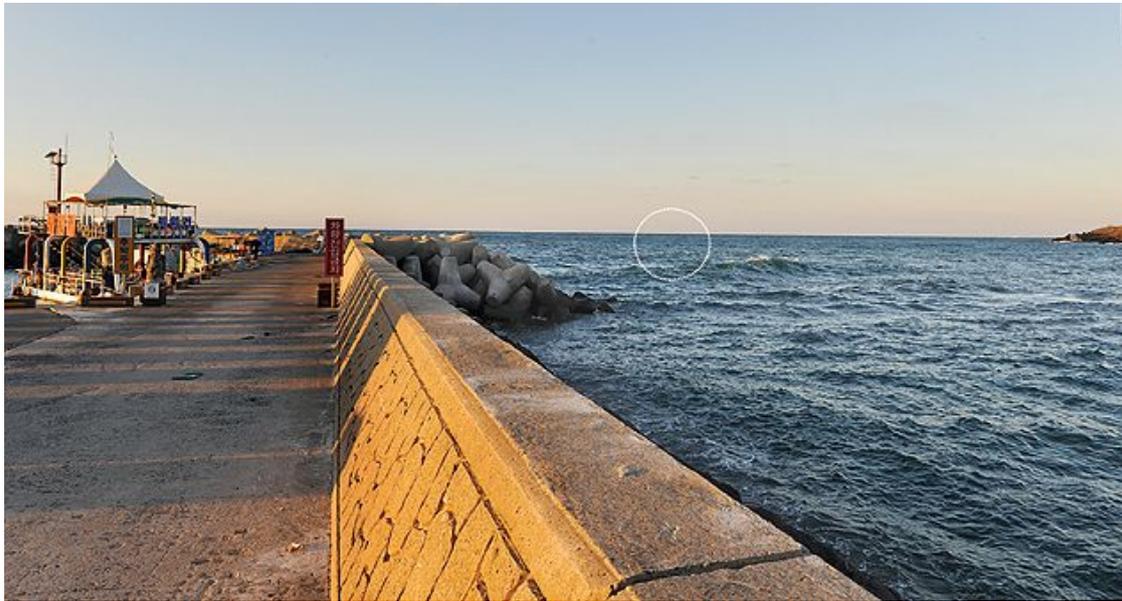


[제주해양리포트 6부:제주바당 올레길을 가다](10)사수동 시크릿가든

형형색색 수지맨드라미 연산호 군락 비경 장관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3. 10.21. 00:00:00



▲제주시 사수동 인근 해역의 '시크릿가든' 포인트(사진 속 점선)는 제주시지역에서는 드물게 스쿠버다이빙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다. 신용덕 자문위원

**다양한 형태 해송·해면류 보란 듯 자태 뽐내
부유물질 많다는 단점 불구 다이버 각광 전망
하수처리장 배출수 유기물이 산호 번식 도움**

우리나라에서 스쿠버다이빙의 천국이라 불리는 제주도. 명성 만큼 빼어난 수중경관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주도를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손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도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는 대부분 서귀포쪽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시 부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이 관심을 끌 만한 좋은 다이빙 포인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시 근방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탐사팀은 10월초 제주시 주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수중비경에 대해 많은 스쿠버다이빙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뒤편에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수동에 위치한 제주바다하늘이라는 다이빙 전문점을 방문했다.



▲다양한 크기의 자리돔 무리가 수지맨드라미로 이뤄진 연산호 군락 사이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주바다하늘 제공

심용철 현지가이드(제주바다하늘 직원)의 안내로 배를 타고 사수항을 출발해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해역으로 향했다. 탐사 포인트에 도착하자 수면에 표시부이가 설치돼 있었고 잠수장비와 수중카메라를 준비해 잠시 후 부이를 따라 수중에 입수해 일명 '시크릿가든'이라는 포인트에 도착했다.

탐사대는 바닥에 도착한 순간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닥까지 내려가 확인한 수심은 약 27m, 전체적인 지형은 약 1~2m 높이의 암반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완만한 해저지형으로 형성돼 있었다. 암반 위로는 형형색색의 수지맨드라미류, 해송류 그리고 해면류가 다양한 형태를 갖고 보란 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 주변을

여유만만하게 낚선 방문객을 주시하는 라이언피쉬(쓸베감팡)가 유유히 유명을 하고 있었다. 또 다양한 크기의 자리돔 무리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수지맨드라미로 만들어진 연산호 군락 사이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 바닷속에 숨겨진 비경은 시크릿가든 말 자체였다.

전체 크기가 0.5~1m 이상으로 이루어진 연산호 군락은 이곳을 방문하는 дай버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사진촬영 등 자신들의 다이빙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해역의 특성상 수심이 다소 깊고 동쪽으로 모래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침전물이 많아 дай버의 움직임에 따라 부유물질이 발생해 쉽게 흐려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시 주변에서 이와 같은 다이빙 포인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과 함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제주바다하늘 관계자들의 수고가 느껴졌다.

김선일 제주바다하늘 대표는 "시크릿가든 주변에서는 산호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배출수가 나오는 인근에서는 산호들이 관찰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배출수에 포함돼 나오는 유기물들이 산호의 번식을 돕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대로·최태경기자

[전문가리포트]"다양한 해양생물 변화 또다른 수산자원될 듯"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제주도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몇년 전 제주 MBC에서는 산호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과거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던 해역에 연산호 군락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방송한 바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제주연안의 해양생태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연산호 군락이 서귀포 뿐만 아니라 제주시 주변의 수중에서도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주연안 해양생태계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연산호 군락을 바라보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생물군집의 변화가 연안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고통을 주는 불청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주연안의 또다른 훌륭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제주자치도가 세계적인 스쿠버다이빙의 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해양활동에 필요한 특색있는 잠재적 자원(?)의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성환 자문위원(연안생태기술연구소장)>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